

# 패션에 나타난 빛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성은\*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졸업\*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논문은 빛에 관한 과학적, 철학적, 미학적 고찰과 예술에 나타난 빛 이미지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빛 이미지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예술과 빛에 대한 사적 고찰은 고대에서 현대까지이며, 패션에 표현된 빛 이미지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20C 이후 빛을 소재로 한 예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예술에서 빛은 이미 가시적 조형성으로 적립되어 왔으며, 특히 20C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빛을 매체로 하는 다양한 예술들을 통해 빛의 이미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예술에 나타난 빛의 이미지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왔으며 조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 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 20세기 이전 예술에 나타난 빛의 주된 이미지는 신비주의로, 20세기 이후 빛 관련 예술로는 미래주의, 키네틱 아트, 사이키델릭 아트, 테크놀로지 아트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패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신비주의 패션에서는 화려한 자수, 금과 보석 장식, 스테인드 글래스, 모자이크의 화려한 색채, 성화이미지, 다양한 광택소재의 사용을 통해 중세적 화려함과 빛의 신비성을 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빛은 신비성, 절대적 진리와 미, 영원성, 부과 권력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또한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 패션에서는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청색, 은색 등이 빛과 어우러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신비로움과 초월적 힘을 표현한다. 둘째, 미래주의 복식은 형태, 색상, 패턴, 소재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식스타일을 추구하려 하였다. 미래주의 패션에 표현된 빛은 혁신과 창조적 발상, 역동성, 속도감이며, 신소재의 인공적 광택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 유토피아적 지향, 우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셋째, 키네틱 아트와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은 키네틱 패션은 투명한 재

료나 빛에 의한 변화를 나타내는 금속재료, 형광재료, 다양한 광택 재료를 사용하여 실제적 운동감과 빛의 환영적 움직임을 통한 공간감, 빛의 반사를 이용한 역동성 등의 빛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사이키델릭 패션은 야광과 형광에 가까운 밝고 선명한 색의 대비, 유기적인 곡선의 아르누보적 문양, 테크놀로지 아트의 영향을 받은 빛나는 금속성 색채나 인공적 색채를 주로 이용하였다. 빛의 미적가치는 환각상태를 통해 이성을 초월한 오감의 해방을 추구하는 환상적 이미지와, 성적인 관능성이다. 다섯째, 글리터 패션은 신비주의, 미래주의, 사이키델릭 아트 등의 영향을 받았다. 1950년대 로큰롤과 1970년대 글램 록 가수들의 글리터 패션에서 골드(Gold)와 라메 소재의 사용, 다이아몬드 착용은 부와 명성, 신화적 우상화와 신비주의적 표현이었다. 또한 화려한 장식은 사이키델릭한 조명 아래 양성적인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글리터 패션은 화려한 비즈와 스팅글, 섬세한 자수, 다양한 글리터 소재의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표현된 빛은 관능성과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테크놀로지 패션은 우주적 신비주의, 미래주의, 테크놀로지 아트의 영향을 받은 스페이스 패션, 사이버-테크노 패션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 패션에서 빛은 신소재와 금속을 이용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주시대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미래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테크노-사이버 패션은 첨단기술이 낳은 창의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색다른 감각을 전달하고 영상과 대중매체에서 느껴지는 현란하고 다양한 첨단색채를 통해 창조적 빛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빛의 미적 가치는 미래 지향성, 유토피아 지향성, 창조적 아방가르드성으로 요약된다.

이상과 같이 빛은 다양한 예술 양식 안에서 표현되어왔고, 패션에 연결되어 외적 조형성과 내적 의미 면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며 다양한 이미지로서 표현되고 있다.